

## 한국기독교 초기 윤리학교과서 문헌해제 및 한국적 수용과정 연구\*

이 장 형 (백석대학교 교수)

### I.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연원

### II. 스왈른과 그레고리

### III. 문헌 해제

1. 스왈른 번역 『도덕학』에 대한 일반적 해제
2. 한국교회, 그리고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과서 『도덕학』

### IV. 『도덕학』 해제와 분석 작업을 통해 본 책과 번역의 특징

\* 첨부 1

『도덕학』 목록에 대한 현대어 다시읽기 및 영한대조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 2007 327 A00283)

---

• ABSTRACT •

---

I researched into *Christian Ethics* written by D.S. Gregory and Korean translation by W.L. Swallen(1859-1954). Out of the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sub titles of the book, I discovered that the missionaries at the Korean United Theological Seminary in Pyeong-yang used well organized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the education of Christian ethics. We can also se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in their education.

First, in Korean translation, words related with society were either abbreviated or changed. Under the Japanese annexation situation, it seems that missionaries had to emphasize individual virtues in class rather than social ethic even though the book itself had social ethics in its contents.

Second, the book *Christian Ethics* also had well balanced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contents. According to the notebook of students who took the ethics class at the time, we can see that there were lively arguments on the terms like 'definitions of ethics', 'Supreme Good', etc.

Third,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of Christian ethics in Korea we need to do deeper researches on the sources of early Korean theological education.

**Key Words** : Do-Deok-Hak, Christian Ethics, W. L. Swallen, translation, textbook

---

## I.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연원

한국의 초기 신학교육에서는 윤리학을 어떻게, 무슨 교재로 가르쳤을까? 기독교윤리학의 학문적 역사와 그 자리매김과 관련해서 한번은 던져 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막연하게 생각할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초기 기독교 윤리학 관련 도서의 체계적인 수집 및 해제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사실 본 연구는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출발점을 어디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였다. 한국기독교윤리학의 기원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 맹용길 박사의 『한국 기독교 윤리사상』과 강원돈 교수의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어제와 오늘』등을 들 수 있다. 맹용길 박사의 연구는 김교신, 박형룡, 한경직 등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일제강점기동안 기독교윤리에 대해 단편적으로 언급한 자료를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강원돈 교수는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어제와 오늘』<sup>1)</sup>라는 연구를 통해 한국 기독교윤리학에 대한 연구사와 한국기독교윤리학의 형성 과정, 1990년대 초반의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지형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sup>2)</sup> 이 선행 연구들은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남은 것은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윤리학’에 대해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어디서 언급하거나 가르쳤는지, 그 교재는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자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여러 자료 가운데 우선

1) 2002년 12월 24일 작성 논문으로 Kang Won-Don's Social Ethics Article Archive 에서 인용했다.

2) 한국기독교윤리학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오지석, 「한국기독교윤리학, 그 처음 이야기」, 『기독교사회윤리』 제15집을 참고하였다.

그레고리(D.S.Gregory)의 *Christian Ethics*의 한글 번역서인 『도덕학』(스왈른 번역)의 목차와 주 내용을 분석하면서 초기(장로회)신학교 과목 편성 및 그 사용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왜 많은 자료들 중에 이 책에 주목했는지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역자인 스왈른이 한국(韓國)선교사(宣敎史)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소장처가 확실하여서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었다.

다른 학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양의 학문들은 개항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소개되었다. 기독교윤리에 대한 소개와 접근이 시도된 것이 대한 제국 때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도덕·윤리 교육이 실시된 것도 갑오개혁 시기(1894~1905)에 마련된 “중등교육과정”에서였다. 이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7년제 관립 중학교 과정을 설치하여 4년간의 심상과(尋常科)와 3년간의 고등과(高等科)를 구분하여 운영하였고, 심상과에 ‘윤리’과목을 두었다.<sup>3)</sup>

자료 : 한규원, 『한국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연구』, 70~141, 183<sup>4)</sup>

과 목	교과서	저자, 편자, 역자	출판 년도	사용 학교
수 신	초등소학수신서	유근		배영학교
	고등소학수신서	휘문의숙 편	1908	공옥여학교
	여자소학수신서	노병선 외		이화학당, 진명여학교, 양원여학교
	중등윤리학교과서	안중화 역	1907	배영학교

3) 배석원,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형성과 구조」, 『한국 도덕·윤리 교육백서』(한울, 2000), 211.

4) 백종구, 「구한말 기독교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의식(1885~1910)」, 『신학과 실천』, (한국실천신학회, 2008), 246~247에서 재인용.

신학의 제 분야 가운데 ‘기독교윤리학’은 철학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기독교윤리학의 주요 개념을 볼 때 철학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학이 지배하던 한국사회에서 삼강오륜 이외의 새로운 도덕 개념이나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기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서양의 윤리학을 이해했고, 특히 기독교윤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이 일어난다. 이에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한국 신학교육 형성기의 윤리학과 관련한 <교과서>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보편적으로 행해진 ‘수신서’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매우 체계화·정교화 된 윤리 교육이 행해졌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신학 중 윤리학의 연원을 1960~1970년대 구미 유학생들의 공헌으로 바라보는 것은 단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수준 높은 윤리학 교육이 초기 신학교육에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장로회 신학교에서 행해진 『도덕학 강의공책』<sup>5)</sup>을 살펴보면, 대부분 책의 내용이 정교하게 전달·강의되었음을 볼 수 있다. 1920년대 이후 일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게 된 학생들은 일본어로 된 책들에서 서양의 기독교윤리를 쉽게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정보 내용들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 선교사에 의해 소개, 번역된 한계는 있으나 기독교윤리학의 교재 편찬과 교육은 미국의 신학교육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가 직접 검토한 미국 맥코믹신학교의 커리큘럼에 의하면, 입수한 자료들 가운데 1919년 교과과정부터야 종교철학과 윤리가 별도의 영역으로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조직신학분과에서 담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1919~1920년의 맥코믹신학교 커리큘럼에 의하면, 제

5) 장로회신학대학 소장의 지수왕(평양신학교 29회 1935년경 졸업생)이 정리해 놓은 윤리학 강의 공책과 작자 미상의 강의 공책(근대신학난제, 윤리학, 신구약중간사)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학문 영역을 히브리어와 구약주석, 신약주석, 영어성서, 교회역사, 역사신학, 종교철학과 윤리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목회신학, 사회학, 선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왈른은 신학교육을 받기 이전에 우스터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대학교육을 받을 때 보았던 그레고리의 *Christian Ethics*를 선교지인 한국에 소개하였다. 이는 한국 기독교 윤리학(장로회중심)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기독교윤리학을 소개한 스왈른과 그레고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스왈른과 그레고리

*Christian Ethics*의 저자 그레고리(D.S. Gregory)는 1832년 출생하였으며 1857년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하고 1859~1860년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1871년 미국 오하이오의 우스터대학(Wooster University)에서 형이상학과 논리학 교수가 되었다. 1879년 미국 일리노이 주의 레이크포레스트(Lake Forest)대학 총장이 되었다. 그는 1875년 *Christian Ethics*, 1876년 *Why Four Gospels?*, 1881년 *Practical Logic* 등을 출간하였다.<sup>6)</sup>

필자는 스왈른이 공식적으로 선교활동을 보장받은 첫 선교사라는 데 주목하였다. “사실 조선 정부가 선교의 명목으로, 다시 말하면 인전교사(因傳敎事)로 호조(護照 : 당시 개시(開市)한 곳 이외의 지역으로 외국인 이 여행할 때 휴대해야 했던 여권)를 발행한 것은 1898년 6월 10일, 스왈른(W.L. Swallen, 蘇安論 : 1859~1954)선교사가 처음이었다. 즉 그는 공식적인 ‘미국 선교사(An American Missionary Teacher)’ 자격을 갖고 활동했던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장로교의 언더우드나 감리교

6) Appletons' Encyclopeia of American Biogralhy/ ed., by James Grant Wilson and John Fiske. NewYork: Appleton, 1888~1889.

의 아펜젤러가 입국한지 실로 13년만의 일이었다.”<sup>7)</sup> 또한 스왈른과 그레고리의 연결은 스왈른이 맥코믹신학교로 진학하기 전 우스터 대학교에서 교육받았다는 점이다. 그레고리는 우스터대학에서 재직 중이던 1875년에 *Christian Ethics*을 출간하였고, 형이상학과 논리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스왈른이 우스터대학을 졸업한 것은 1889년이었으므로 그는 그레고리의 책을 접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왈른 (W.L.Swallen, 蘇安論; 1865~1954)은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였다. 그는 한국교회에서 자신의 본명인 스왈른보다 한국 이름인 소안론으로 더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기독교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한 맥코믹신학교 출신이다. 1892년 11월 부인 살리 윌리슨 (Sallie Willison, 1863~1945)과 함께 한국선교사로 내한, 서울 선교부에 소속되었다가 1893년 1월 북장로교 연차회의에서 마펫(Samuel Moffett), 리 (G.Lee, 이길함) 등과 함께 관서지방, 평양 주재 선교사로 위임받았다. 1899년 평양선교부로 이주, 그해 3월 윌리엄 베어드(W.M.Baird, 배위량) 목사가 안식년으로 귀국하자 송실학당 관리책임자로 봉직하면서 예배를 담당하였다. 이를 계기로 1901년 부친의 유산 1만 8천원을 송실학당에 기증하여 초기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같은 해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초대회장으로 피선되었으며 1903년 1월 마펫, 베어드, 리, 헌트Hunt, 번하이슬Bernheisel(편하설)과 함께 평양에서 평양신학교를 발족, 학생 6명(장로 4명 포함)으로 개교하였다. 또한 그 해 여선교사 스눅(Velma L. Snook, 선우리)를 도와 평양남문교회를 설립하였다.

1932년 스왈른 부부는 평양선교부에서 은퇴하였는데, 그는 40년 동안 한국선교사로 사역하였으며 그 중 33년을 평양선교부에서 보낸 것이다. 은퇴 후 스왈른 부부는 귀국하여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www.kci.go.kr

7)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135.

만년을 보내다가 1945년 12월 31일 부인이 별세하였고, 스왈른은 1954년 5월 8일 별세하였다. 그는 4명의 딸을 두었는데 장녀와 차녀는 한국과 계속 관련을 맺었다. 장녀 올리베트 Olivette R. Swallen(蘇安燁)는 스눅 선교사의 후임으로 평양 숭의여학교 3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신사참배 문제에 타협하지 않고 1938년 3월 15일 폐교될 때까지 숭의여학교를 지켰다. 또한 차녀 그릿르드 Gretrude는 한국전쟁 반공 포로의 아버지, 거제 포로수용소의 성자로 불리는 보켈 Havold Voelkel(옥호열)과 혼인하여 선교 활동에 헌신하였다.

스왈른의 기독교 윤리사상의 단면을 찾아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스왈른 목사의 후손들에 의하여 기증되어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기산풍속도 관련 문서 중에 있는 스왈른 선교사의 타이핑원고이다. 원고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신수품 소개’문헌<sup>8)</sup>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볼 수 있다. ‘한국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교화 양상을 “근면 검소(Industry and Thrift)”, “가정과 청결의 발전(The Development of Home and Cleanliness)”, “종교적 열의(Religious Enthusiasm)” 등으로 부각시킨 이 글은 태생적으로 게으르고 불결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몰랐던 한국인이 기독교인이 된 후 개심하여 완전히 뒤바뀐 양상,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면모 등을 서술함으로써, 한국 기독교인의 인격을 증언하고,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구 불신자의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sup>9)</sup> 이러한 입장은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8)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편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자료 소개, 『한국기독교박물관지』 제3호, 2008.

9) 위의 책, 165~166.

### 3. 문헌 해제



도덕학(한문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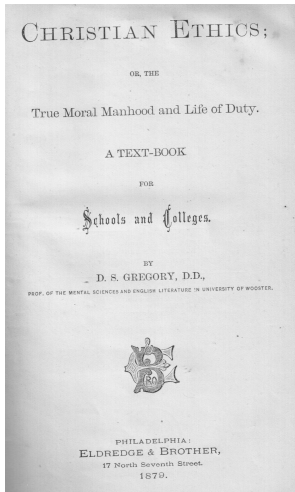
도덕학(한글)

한국기독교윤리학 초기 문헌자료는 스왈른의 『도덕학』, 스토커(James Stalker)의 『그리스도윤리표준』(1929년), 『그리스도모범』(1929년), 맥도널드(R.A. Macdonald)의 『기독교사회사상』(1926년),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의 『야소의 사회훈』(1930) 등 6권이였다. 이 자료들을 모두 소장한 곳이 한국기독교박물관이였고, 한국기독교박물관(소장 한영제, 부소장 이덕주)측의 도움으로 이 책들의 복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sup>10)</sup> 이 자료들 가운데 필자는 우선 그 1차 대상으로 개항 후 국내서 발간된 기독교윤리와 관련된 한글본 인쇄물인 스왈른(W. L. Swalon, 蘇安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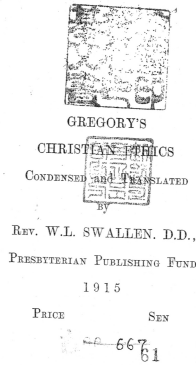
10) 자료를 제공해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1955년 '한국 기독교 문화 창달'이라는 목적을 갖고 설립된 기독교문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초교과적 문서선교기관으로 설립된 기독교문사는 출판 역사 40년 동안 많은 기독교 관련 서적을 출판하였는데 그 중에도 1985년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편찬한 《기독교대백과사전》(전 16권)을 비롯하여 《기독교대연감》, 《한국 기독교의 역사》 등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앙, 역사와 문화를 담은 책들을 출판하였다. (www.kchmuseum.org)

1865~1954)목사가 번역하여 평양 장로회신학교와 각급 기독교계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된 『도덕학』(1919)을 삼았다. 이 자료는 한글 맞춤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신진 학자들이나 학문 후 세대들이 자료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현대어로 다시 읽기가 필요하다. 다시 읽기에 앞서 우선 그 목록을 정리하는 가운데 기독교윤리학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도덕학』 해제(解題)를 시도하게 되었다. 목록은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개념어들을 영한 대조로 만들어 첨부하였다.

필자는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초기 교과서인 『도덕학』의 원서(D. S. Gergory, *Christian Ethics; or the true Moral Manhood and Life of Duty*, Philadelphia: Eldredge & Brother, 1879 초판 1875)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원서와 번역서를 대조하며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이해했던 윤리학의 개념과 주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초기 기독교윤리학 교재는 일제강점기 일제를 위한 식민양성을 목적으로 한 ‘수신서’ 이상의 상당한 체계를 갖춘 윤리학 교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와 관련된 강의안이 현존하고 있음도 확인하게 되었다. 영문판인 교재의 원본과 번역본, 강의공책 등을 통해 본 실제적인 신학수업의 내용을 되살려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연구가 될 것이다.



도덕학(영문판)



도덕학(원저표기)

### 가) 스왈른 번역의 『도덕학』에 대한 일반적 해제

『도덕학』의 원문서명은 D. S. Gregory, *Christian Ethics; or the true Moral Manhood and Life of Duty*, (Philadelphia: Eldredge & Brother, 1879)이다.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이며 숭실대학교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스왈른 W.L.Swallen(蘇安論; 1865~1954)이 1915년 역술한 것이다. 평양의 마켓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으며, 인쇄소는 평양에 있는 광문사이며, 경성의 야소교서회와 평양의 광명서관에서 발행하였다. 국판 289면으로 되어 있으며, 국한문 혼용체이며 내려쓰기를 하고 있다.<sup>11)</sup>

현전하는 『도덕학』은 1915년, 1919년(2판) 등이 있다. 연구자는 두 텍스트

11) 1892년 무렵 이미 배재학당 활판소에서 영문 활자와 한글 활자를 직접 주조해서 사용할 정도로 큰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에 이룩된 '성서체는 기독교 계통 학교(미션 학교)의 교과용 도서뿐만 아니라, 「독립신문」(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라는 제호로 창간) 등 많은 간행물을 찍는 데도 두루 사용되었다. 이종국, 『출판 변천 연구 한국의 교과서』(일진사, 2001), 103.

트를 사용하였으며, 1915년판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 1919년판은 연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sup>12)</sup> 책의 내용은 같은데 1915년 판은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고, 1919년판은 한자를 병기한 차이가 있다. 스왈른은 이 책의 ‘서문序文’에서 이 책의 역술목적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도덕학은 대미국 유명한 그레고리(쓰레소리) 박사가 기록한 책을 번역한 것인데 이 도덕학의 이치는 모든 사람의 행위와 관계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 도덕학을 공부하여 이 이치를 자세히 알고 가르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에 있는 신학교(神學科)와 대학교(大學科)와 중학교(中學校)를 위하여 특별히 발행한 것이지만 누구든지 이 책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편집하였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上·下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편은 ‘제목題目’·‘장章’·‘대지大旨’·‘고股’·‘단段’·‘층層’·‘계급’·‘1…’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목차에 잘 나타나있다. 상편 도덕의 이론에서는 1) 사람의 성품 2) 덕의 이치 3) 사람의 본분의 이론을 기술함을 다루었고, 하편 도덕의 행위에서는 1) 자기에게 할 부분 2) 남에게 할 부분 3) 하나님께 할 부분 등을 다루고 있다. 결론에서 “도덕의 지극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밋는 가운데 잇스니 예수를 밋는 사람이라야 테일노 덕형을 할수 잇스며 또한 사람들이 지극한 목적을 온전히 하고저 하면 예수를 밋고 순종함으로 할 거시니라”고 밝히고 있다.

12) 동일본이 장로회신학대학교에도 소장되어 있으며, ‘강의공책도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역사화보집』(장로회신학대학교, 2008), 233.

## 나) 한국교회, 그리고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과서 『도덕학』

한국기독교 선교 초기의 기독교윤리 교육에 대한 자료는 교리서와 신문, 잡지 기사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기독교윤리에 대한 자료는 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윤리학을 담당한 스왈른 선교사가 번역한 『도덕학』을 들 수 있다. 그 후 박형룡, 송창근이 《신학지남》에 투고한 것과 한치진이 미국유학에서 돌아와 《신학세계》에 투고한 글들에서 기독교윤리학에 대한 당시의 이해를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한국장로교계 신학교의 효시인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초기 교수진은 대부분 맥코믹신학교 출신이었다. 한국선교 초기 맥코믹신학교 출신의 선교사로 1888년부터 1902년에 한국에 입국한 숫자가 14명이다. 이들 가운데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수단에 포함된 이들은 마펫(신학, 교회정치; 1888년졸), 스왈른(기독교윤리, 신, 구약 주해; 1892년졸), 클라크(설교학; 1902년졸), 변하이젤(1900년졸), 베어드(1988년졸)이다. 1901년 마펫 선교사의 사랑방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할 때, 당시의 신학교는 아직 일정한 교과 과정이 설정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교과과정을 채택하여 신학 교육을 시작한 해는 1903년부터이다. 이때의 교과과정은 전체 5년으로서 1년에 3개월간 교육을 시켰다. 이런 5년 교과과정이 1910년에 다시 개정되었고, 5년 교과과정이 1919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러다가 1920년에 5년 교과과정이 3년 교과과정으로 변경되었다. 이 변화는 커리큘럼 및 학제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20년 교과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성경만을 강조하는 신학교육에서 좀 더 확장된 신학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등의 조직신학을 세분화해서 구성하였고, 목회신학, 선교 등의 실천신학과 선교학을 추가하였다. 심리학, 교육학, 윤리학, 사회학 등과 일본어, 음악 등의 과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이 당시의 교수진은

미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북장로회-마켓, 크라크, 어도만, 사도업, 베어드)들을 비롯한 미 남장로교(레이놀즈, 유진 벨, 캐카친), 호주장로교(왕길지),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롭 A.F. Robb)들이 비교적 균형 있게 구성됐재, 맥코믹신학교와 비슷한 학풍이 1925년 라부열이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와 흡사한 교육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양신학교의 1920년대 학과 과목과 학기별 배정은 다음과 같다.

1학년 봄학기(3~6월)-공관복음, 창세기, 구약총론, 성경교리문답, 변증론,  
구약사기, 설교학

가을학기(9~12월)-사도행전, 출애굽기, 신약총론, 교회사기, 종교사, 도덕  
학, 설교학, 실제신학

2학년 봄학기-요한복음, 에베소서, 신약총론, 시편, 구약지리, 신학총론, 교  
회사기, 설교학

가을학기-고린도전후서, 신약지리, 이사야서, 신학총론, 교회사, 교회정치,  
실제신학, 심리학

3학년 봄학기-히브리서, 구약총론, 다니엘서, 말세론, 성례론, 교회사기, 권  
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가을학기-로마서, 묵시록, 예레미야서, 영혼론, 성령론, 교회사기, 목회학,  
사회학, 실제신학

이 과정을 보면 『도덕학』이 새로운 커리큘럼에 맞춰 번역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도표/1888년 맥코믹신학교와 1920년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과과정 비교<sup>13)</sup>

	맥코믹신학교(1888년)		평양 장로회신학교(1920년)	
조직신학	1학년	변증학, 힘증학 /영감, 신론	1학년	신학(요리문답, 기독교증거)
	2학년	변증학, 힘증학 /창조, 천사, 인간, 죄, 그리스도론, 성령	2학년	인간론, 구원론
	3학년	변증학, 힘증학 /율법, 기독교인의 자유, 은혜, 기도, 안식일, 종말론	3학년	종말론, 성령론
성경신학	1학년	구약문헌 및 주해 신약문헌 및 주해	1학년	신약주해, 구약주해, 신약개론, 구약사
	2학년	구약문헌 및 주해 신약문헌 및 주해	2학년	신약주해, 구약주해, 구약지리
	3학년	구약문헌 및 주해 신약문헌 및 주해	3학년	신약주해, 구약주해
교회사	1학년	교회사(사도시대 - A.D.590 )	1학년	사도시대 - 니케아시대
	2학년	A.D.590 ~ A.D.1648	2학년	니케아시대 - 니케아후기, 종교개혁전 역사
	3학년	A.D.1648 ~ 현대	3학년	종교개혁사, 종교개혁 후 역사
목회신학	1학년	수사학(주해연습)	1학년	설교학
	2학년	수사학(설교연습)	2학년	설교학
	3학년	수사학(설교연습)	3학년	목회신학
기타			기독교윤리, 심리학, 교육학, 교회정치, 성례, 사회학, 현대선교 등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920년부터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3년 교과 과정이 체계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며, 기존의 성경만을 강조하는 신학 교육에서 좀 더 확장된 신학교육을 목표로 신학의 세분화와 함께 심리학,

13) 조경현, 「한국 초기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신학의 뿌리」, 『教會史學』(한국기독교사학회, 2006), 245~246.

교육학, 윤리학, 사회학 등의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커리큘럼은 미국 맥코믹신학교의 교과과정과 상당히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sup>14)</sup>

1916년 처음으로 평양신학교 요람이 제작되면서 교수진들은 자신의 전담과목을 맡았고, 이때부터 평양 장로회신학교가 신학교로서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20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보다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신학교육은 이전의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 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된 『도덕학』이 초중등학교 수준의 수신학(修身學)이나 그 밖의 윤리서와는 확연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필자는 『도덕학』의 목록과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대한제국 시대 및 일제 강점기의 수신학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기독교윤리를 살펴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기 기독교계의 각종 학교에서 사용한 스왈튼의 『도덕학』을 비롯한 서양의 기독교 윤리사상을 소개하고 있는 번역서들이 한국 사회 유입에 유입되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도덕학』 해제와 분석 작업을 통해 본 책과 번역의 특징

첫째, 번역에 있어서 ‘사회’와 관련된 용어는 약간의 의역과 생략이 있었음이 엿보인다. 원저 “Part II Practical Ethics, Division I Individual Ethics”와 “Division II Social Ethics”가 번역서에는 “하편 도덕의 행위 1제

14) 1925년 리부열이 마포삼열에 이어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신학교의 학풍은 프린스頓신학교의 커리큘럼과 유사하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목 자기에게 할 부분”과 “2제목 타인에게 할 부분”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황이 분명히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서에서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영역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윤리적 덕목에 치중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둘째, 이 기독교윤리 교과서는 철학, 신학적 내용을 포괄하는 상당히 균형 잡힌 체제를 갖춘 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공책’을 보면 윤리학의 정의부분에서 ethics의 어원과 Supreme Good 등에 대한 논의가 이미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볼 때 일부 교회신학자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선교사들에 의한 초기 신학교육이 저급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였다.

셋째, 근대학문 유입이 100년 이상 넘어선 한국 신학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학의 학문 발전이 미미한 연유 중 하나는 초기 문헌에 대한 이해와 검토, 재해석이 부족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필자는 초기 한국기독교윤리학의 교재인 『도덕학』의 문헌해제와 목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학문의 지나온 자리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윤리학의 담론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이 연구를 계기로 확보하게 된 문헌들을 개인, 공동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확인하였다. 물론 윤리학 교과서의 편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가 평양의 장로회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점, 이미 상당한 체계화를 이루고 있던 천주교 관련 문헌을 살펴보지 못한 점 등 연구의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런 점들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첨부1

스왈른의 『道徳學』 目錄 현대어 읽기 및 영한대조표

## 참고문헌

-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 김영재, 『한국교회사』(이레서원, 2007).
-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배석원,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형성과 구조』, 『한국 도덕·윤리 교육백석』(한울, 2000).
- 백종구, 『구한말 기독교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의식(1885~1910)』, 『신학과 실천』(한국실천신학회, 2008).
- 백종구, 『초기 개신교 선교부의 사회 윤리』, 『教會史學』(한국기독교사학회, 2004).
- 서정민, 『일본기독교의 한국인식』(한올아카데미, 2000).
- 신혜영 편술, 『倫理學教科書 卷一』, 한국교육개발원 소장본.
- 소안론, 『도덕학』(조선예수교장로회간인, 1915).
- 소안론, 『道德學』(조선예수교장로회간인, 1919).
- 이종국, 『출판 변천 연구 한국의 교과서』(일진사, 2001).
- 조경현, 『한국 초기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신학의 뿌리』, 『教會史學』(한국기독교사학회, 2006).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기독교문사, 2006).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기독교문사, 2007).
- 황준연, 노평규, 『退·高 四七論辯 이후의 사찰론 관련자료 현황』, 『유교사상연구 제21집』(한국유교학회, 2004).
- D. S. Gergory, *Christian Ethics; or the true Moral Manhood and Life of Duty*, Philadelphia: Eldredge & Brother, 1879

논문투고일 : 2009. 10. 31

심사개시일 : 2009. 11. 10

게재확정일 : 2009. 11. 23

---

• 국 문 초 목 •

---

그레고리(D.S.Gregory)의 Christian Ethics 의 한글 번역서인 『도덕학』(스왈른 번역)의 목차와 주 내용을 분석하면서 초기(장로회)신학교 과목 편성 및 그 사용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한국 신학교육 형성기의 윤리학과 관련한 <교과서>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보편적으로 행해진 ‘수신서’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매우 체계화·정교화된 윤리 교육이 행해졌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번역에 있어서 ‘사회’와 관련된 용어는 약간의 의역과 생략이 있었음이 엿보인다. 일체강점기 상황이기에, 원서에서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영역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윤리적 덕목에 치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 기독교윤리 교과서는 철학, 신학적 내용을 포괄하는 상당히 균형잡힌 체계를 갖춘 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공책’을 보면 윤리학의 정의부분에서 ethics의 어원과 Supreme Good 등에 대한 논의가 이미 등장하고 있다.

셋째, 근대학문 유입이 100년 이상 넘어선 한국 신학에 있어서 기독교윤리학의 학문 발전이 미미한 연유 중 하나는 초기 문헌에 대한 이해와 검토, 재해석이 부족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주제어 :** 도덕학, 기독교 윤리, 스왈른, 교과서, 번역

---

〈첨부 1〉

스왈른의 『道徳學』 目錄 현대어 읽기 및 영한대조표

1. 上篇 道徳의 理論

(1) 一題目 人の 性品

〈표 1〉 一章 人の 位가 잇는者

대지 大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행동하는 者	一 股 人은 자유로 행동하는 神 Man a Self-Active Spirit	一段 人은 自由로行動하는者/人의뜻 가지行動하는法	
		二段 人은恒常行動하는者/理學士 의證據	
		三段 人은行動이前進하는者/前進 하는法	
		四段 人은永遠히行動하는者/永遠 토록行動하는筈/永遠토록 살게하시는證據/聖經말씀 이永遠히사는거슬證據함	
	二 股 人은 體에神이 有함 Man a Spirit Embodied	一段 神이居르고일하는 장소	
		二段 神이體로因하여萬物을感覺 하는事/五官/神이前進하는 事/男女의分別	
		三段 身은神의일하는機械/神과 身이 互相關係됨	
	三 股 人이 하나님과親히 相關됨 Man Consciously Linked with God	一段 人이 하나님을 알게 지어내심	一層 原因으로 알 것
			二層 經營으로 알 것
			三層 祈禱함으로 알 것
			四層 良心으로 알 것
		二段 人이 現世에서 豫備홀事	一層 前進하는 法 二層 治理하시는 法/現世의 形便

			三層 道德으로 견진하는 法/現世에 賞과 罰이 있음	
二大旨 行動의 動力/ 目的과 原因을 解釋함	一股 行動의 目的動力 The Good as the Motive Object in Action			
	二股 行動의 原動力 The Motive Cause in Action	一段 人的行動의 根本事實	一層 善美하기를 願함	
			二層 知能이 行動을 始作하는 相關	
			三層 感覺으로 行動을 始作함/知能和 意志와 感覺이 互相關係됨	
	二大旨 行動의 動力/ 目的과 原因을 解釋함	二股 行動의 原動力 The Motive Cause in Action	二段 動力의 分類	一層 分類의 處理
				二層 普通으로 感覺分 解함
				三層 特別히 愛를 分析함
				四層 特別히 欲望을 分析함/首要欲望/ 單純欲望
				一階級 喜樂하기를 得하려고 하는 心 二階級 穩全하기를 懇切히 엇고져 하는 心 三階級 德을 세우고져 하는 心/錯雜欲望/一 氣質, 二  성질- 次要欲望
	三大旨 行함 主掌 力	一股 擇定함 能力 Power of Choice	一段 擇定하는 原質	一層 自然擇定
二段 擇定하는 本理致			二層 理性으로 選擇함	
二股 執意함 能力 Power of Volition		一段 執意의 原質		
		二段 意志로 人의 位가 出現함		
四大旨 行함 引導 力	一股 知慧가 引導力이라 Prudence as a Guide			

	二股 理想的 觀念과 穩全함이 關心이 引導力이라 The Ideal, or Perfect, as a Guide		
	三股 良心이 引導力이라 Conscience as a Guide		

〈표 2〉 二章 人의特性을 言하면 道德이 有함者

대지 大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理學士들 의 道德意識 의 理論을 畧함	一股 經歷으로된 The View of the Experientialists		
	二股 卽覺으로된 The View of the Intuitionists	一段 良心은 單純함 才能이라함	一層 良心은 知能의 作用
		二段 良心은 錯雜함才能	二層 良心은 感覺의 作用
		三段 良心의 속規則	三層 良心은 意志의 作用
二大旨 道德의意 識의 大體를 畧함	一股 經歷으로 된 道德의意識의 事實 The Experiential Facts of Moral Consciousness	一段 知能의 道德의事實/ 道德의判斷의 理致	
		二段 感覺의 道德의事實	一, 正當함 事에 感動
		三段 意志의 道德의事實	二, 不正當함 行爲의 感動 一, 意志가 自己行爲를相關함 二, 意志가 他人의 行爲와 相關됨
	二股 卽覺으로된 道德意識의 事實 The Intuitionist Facts of Moral Consciousness	一段 卽覺으로된 道德의觀念	
二段 卽覺으로되는道德判斷	一層 卽覺으로되는 道德의判斷을畧함 1 三般大關係를相關 된卽覺 道德의判斷/상관 된즉각함는道德判 斷人은 上帝와 關係됨/人이		

				自己의계 關係됨/人이 人과 關係됨/此人은 彼人과 關係됨
				2 三般大善美호는거슬 相關된 卽覺호는道德의判 斷
				3 此道德判斷은 卽覺으로 되고 恒常도 있음
				4 此道德의判斷은 人을 교육호야더分明히 되게함
			二層 卽覺호는道德判 斷은속 法으로숭힐것	1 構成호는 內心法된 事實
				2 卽覺으로 道德判斷
3 人의 本分을 마르침				

(2) 二題目 本分の 理致를 論호

〈표 1〉 一章 德行의 至極호 目的(一 目的이 잇스야 될 것/二 目的과 方法을 分干호)

대지 大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至極한 目的의 理論	一 股 有益호 理論 First General Theory : Utilitarianism	一段 良心이 悅樂호는 理論	
		二段 血肉이 悅樂호는 理論/ 自己의계 有益호 理論/ 一般의人의계 有益호 理論	
	二 股 穩全호 理論 Second General Theory : Perfectionism	一段 自己의 穩全호 理論	
		二段 一般의人의 穩全호 理論	
	三 股 義의 理論 Third General Theory :		

	the Rectitude Theory			
二大旨 義의 理論이 眞된 証據	一股 人の 普通된 意識으로된 証據(영문없음)			
	二股 德行의 理致로된 証據(영문없음)	一段 有益한 理論은 不足함		
		二段 穩全한 理論이 不足함		
	三股 本分の 限定가온디 証據 (영문없음)			
	四股 目的과 偏向을 分干하지 못하는 証據 (영문없음)	一段 德은 喜樂하고 穩全한 偏向		
		二段 喜樂하는 것과 穩全한 거시 德行中에 至極한 目的이 아님		
五股 人이 宜當히 應用할 理致의 証據 (영문없음)	一段 有益한 것과 穩全한 것은 人이 行할 規則이 過히 蒙味함			
	二段 義가 行爲에 쓸만한 規則			

〈표 2〉 二章 義의 至極한 規則

대지 大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至極한 規則의 不合한 理論	一股 國法이 至極한 法則이라하는 理論/ 國法을 至極한 規則이라고 못할 것 First General Theory : Authority of the State		
	二股 世上의 如何한 關係가 至極한 規則이라하는 理論 Second General Theory : the Nature of Things		
	三股 人の 性品이 至極한 規則이라한 理論		

	Third General Theory : the Nature of Man		
二大旨 至極호 規則의 合當호 理論	一股 合호는 理論의 證據 The Theory Confirmed	一段 上帝와 人이 互相關係됨을 證據함	
		二段 人의 道德意識으로 證據됨	
		三段 人의 德行으로 證據함	
		四段 合호 理論과 不合호 理論을 比較함으로 證據됨	
	二股 上帝의 旨가 세 貌樣으로 나타남 The Three Revelations Considered	一段 上帝의 旨가 萬物노 나타남	
		二段 上帝의 旨가 性品으로 나타남	
		三段 上帝의 旨가 聖經으로 나타남	

〈표 3〉 三章 義의 至極호 憑據

대지 大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不合호 理論	一股 義의 宜當호 憑據는 世上原理에서 나온다호는 理論 First General Theory : the Nature of Things		
	二股 上帝의 全權으로 나온다 호는 理論 Second General Theory : the Arbitrary Will of God		
二大旨 當然호 原理의 理論			

(3) 三題目 本分の 理致를 論함

〈표 1〉 一章 人의 本分の 當然호 概念

대지 대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德行의 眞觀念	一 股 德行은 義의 規則에 합호여야 德行이라호 A Virtuous Action must be Materially Right		一階級 規則대로 正當호 行爲
			二階級 規則대로 正當호 行爲
			三階級 規則대로 正當호 行爲
	二 股 德行은 正當호 思想이 有호여야 德行이라 호 A Virtuous Action must be Intentionally, or Formally Right	一 段 分明히 瑪르치는 規則과 思想/行爲는 規則대로 行호였스되 思想이 誤謬되면 不足호/行爲가 正當호 思想과 合호되 義의 規則대로 아니호였스면 不足호	
	二 段 道德에 相關호는 行爲와 思想		
		三 段 義行과 德行을 分干호	
二大旨 一平生本 分の 眞觀念	一 股 一平生에 行호 本分 The Moral Task or Life of Duty		
	二 股 道德相關된 穩全호 人 The Complete Moral Manhood		

〈표 2〉 二章 一平生當然호 일에 應用호 資料

대지 대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能호	一 股 知能이 잇스야 責任을 擔當호	一 段 聰明이 有호여야 德行이 될것	

知能	Intelligence before Responsibility	二段 人の 責任은 聰明이나 機會디로 됨		
		三段 知能을 教育햐여야 됨		
		四段 知能이 穩全햐여야 일을 擔當함		
	二股 教育햐 知能이 有햐여야 一平生의 宜當햐 일을 擔當함 Broad Intelligence before the Complete Life Task	一段 自己의 才能을 知햐여야됨		
		二段 人の 自己의 形便과 地位에 相關됨을 知햐여야 됨		
		三段 人이 宜當햐 거슬 知햐여야됨		
二大旨 教育햐 良心	一股 良心이 有햐여야 責任을 擔當함 Conscience before Responsibility	一段 道德性이 有햐여야 홀것		
		二段 道德性을 教育햐여야 홀것		
		三段 良心이 不足햐 것		
	二股 教育햐 良心이 有햐여야 一平生의 宜當햐 일을 擔當함 Cultivated Conscience before the Complete Life Task	一段 人の 良心은 教育함으로 前進함	一 良心에 分干햐는 能力은 多樣으로 前進함	
			二 良心에 感動된 情照햐는 能力이 行 함으로 전진함	
			三 良心이 衝動햐는 能力이 行함으로 前進함	
			四 良心의 內法이 確實함	
	二段 良心을 教育함으로 穩全케됨			
三大旨 自由햐고 神聖햐 意志	一股 自由햐는 意志가 有햐여야 責任을 擔當햐 것 Free Will before Responsibility	一段 行爲는 自願햐여야 道德의 相關되는 行爲라함		
		二段 行爲는 自由햐여야 道德의 相關되는 行爲라 함/行爲의 分干/自由와		

		自願을 分干함/眞自由호는거시 眞理致라	
		三段 自願과 自由호는 行爲는 道德相關되는 責任	
	二股 神聖호고 自由호는 意志가 有호여야 現世에서 一平生本分을 穩全히 行할 것 Holy Free Will before the Complete Life Task	一段 平生에 宜當히 行할 事를 思호면 神聖호 意志가 有호여야 될 것	
		二段 惡事에 戰鬪호 形便을 思호면 神聖호 意志가 有호여야 될 것	

〈표 3〉 三章 道德性を 維新호 方策

대지 大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人的 性稟이 病된	一股 人的 道德性的 形便 Condition of the Moral Nature		
	二股 道德行爲로 나타남 Workings of the Moral Nature	一段 三般大相關호는 일을 할 때에 人的 行爲가 律法에 마르치는 디로 能히 合호지 못함	
		二段 三般喜美호 일을 行할 時에 人的 行爲가 律法에 마르치는 것과 不合함	
	三股 人的 病된 性稟이 結果로 現호 Consequences of the Moral Disorder	一段 惡호는 일을 罰호는 理致	一層 人的 心身이 病된 罰 二層 苦楚맞는 罰
		二段 法을 違反호면 刑罰을 免호 수 업슴	一層 罪가 스스로 罪되는 거슬 記錄 二層 罪가 스스로 刑罰을 줌
		三段 罪 짓는 人이 刑罰맞는 論	
二大旨 眞維新호 方策	一股 不足호 方策 Inadequate Solutions of the Moral Problem	一段 自改호는 方策	一層 善惡을 分干호는 理致의 証據 二層 史記의 証據
		二段 僞教會理致로 改호라는 方策	一層 理致의 証據 二層 史記의 証據

二股 能히 維新홀 方策 Christianity the only Adequate Solution	一段 예수敎理致로 維新홀 方策	
	二段 此方策이 快足함	一層 理致로 現함 二層 史記로 現함
	三段 예수敎理致外에 維新홀 方策이 無함/合同	

## 2. 下篇 道德의 行爲

(1) 一題目 自己의게 홀 本分

〈표 1〉 一章 自己를 保存함

대지 대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自守함	一股 身을 守함 Preservation of Bodily Life	一段 我가 自我의게 仇敵됨을 직함	
		二段 他人이 我의게 仇敵됨을 직함	
		三段 身이 第一貴호거시 아님	
二大旨 自保함	二股 神을 守함 Preservation of Spirit's Life		
二大旨 自保함	一股 身을 保存함 Care of the Body	一段 免함 것	
		二段 有益함 것	
二大旨 自保함	二股 神을 保存함 Care of the Spirit	一段 身과 神이 互相關係됨	
		二段 神의 行動을 論함	
三大旨 自當	一股 身을 自當함 Support of the Body	一段 植物을 利用함	
		二段 動物을 利用함	
		三段 定物을 利用함	
三大旨 自當	二股 神을 自當함 Support of the Spirit		

〈표 2〉 二章 自己를 培養함

대지 대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一股 普通倍體	一段 體格을 培養함	

倍體	General Physical Culture	二段 五官을 培養함	
		三段 才能使用하기를 培養함	
	二股 特別倍體 Special Physical Culture	一段 性品디로 肉體를 培養함	
		二段 男女를 分干하야 培養함	
		三段 職分을 爲하야 培養함	
二大旨 培神	一股 自己의 神을 알것 Knowledge of the Individual Spirit		
	二股 敎訓의 適合한 理論을 알 것 Correct Theory of Education	一段 才能을 나타냄으로 進取케할 것	
		二段 才能을 行함으로 進就케할 것	
		三段 才能을 平均케함으로 進就케할 것	
		四段 習慣을 思하야 教育하야할 것	
		五段 興味와 熱心을 思하야 進就케할 것	
	三股 適合한 理論디로 自育의 應用함 Application of the Theory to Self-Culture	一段 知能을 培養함	
		二段 感覺을 培養함	
		三段 意志를 培養함	
		四段 分干하는 能을 培養함	
		五段 道德性과 하나님恭敬함을 培養함	

〈표 3〉 三章 自己의 行爲를 主掌함

대지 大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自制	一股 情慾을 制勝함 Government of the Active Propensities	一段 體慾을 禁할 것	
		二段 心慾을 禁할 것	
	二股 才能을 平均케 할 것 Balance of the Powers	一段 大度한 性稟	
		二段 平氣의 心	
二大旨 自主	一股 眞實함과 至極한 目的 The True and Noblest Purpose	一段 單純한 目的	
		二段 合當한 目的	
		三段 至極한 目的	
	二股 目的을 成就함	一段 至極한 目的을 爲하야 才能을	

The Execution of Purpose	使用호는 論	
	二段 至極호 目的을 爲호야 資料를 使用호는 論	
	三段 至極호 目的을 主掌호야 作定호는 意志를 論호	

(2) 二題目 他人의게 호는 本分

<표 1> 一章 萬民과 相關된 義務

대지 대旨	고股	단股	층層
一大旨 萬民을 保守호는 義務	一股 生命의 相關된 義務 Duties Pertaining to Life	一段 人의 生命을 保存호는 것	
		二段 人의 生命을 健康호게 保存호는	
	二股 自由의 相關된 義務 Duties Pertaining to Liberty	一段 自由를 合當호게 막는것	
		二段 自由를 合當치 안케막음	
	三股 財政의 相關된 義務 Duties Pertaining to Property	一段 財政의 理致와 保守호는 權	
		二段 財政權의 違反	
	四股 眞實호는의 相關된 義務 Duties Pertaining to Truthfulness	一段 眞實호는이 名譽의 相關된	
		二段 私談의 眞實호는 것	
		三段 公談의 眞實호는 것	
	五股 同胞兄弟의게 相關된 義務 Duties Pertaining to Human Brotherhood	一段 人을 깃부게호는	
		二段 人의 苦勞로움을 免케 호는	
		三段 人의 罪를 容恕호는	
		四段 人의 恩惠를 報호는 것	
	二大旨 萬民을 發達케 호는 것	一股 萬民을 培養호는의 總則 General Principles of Social Improvement	
二股 萬民을 培養호는의 特別		一段 萬民을 培養호는의 至極호는 目的	

	Special Principles of Social Improvement	二段 成就할 方策	
三大旨 萬民의 管理	一股 特別히 管理	一段 人의 自禁力을 弱하게말것	
		二段 人의 情慾을 活動케 말것	
	二股 特別히 指揮		
	三股 會와 會社를 恤 義務		

〈표 2〉 二章 家屬과 相關된 義務

대지 대旨	고股	단股	층層
一大旨 婚姻의 相關된 義務	一股 婚姻의 理致 The Nature of Marriage	一段 婚姻은 논거슨 卽約條라	
		二段 婚姻은 一男一女	
		三股 婚姻은 終身토록할것	
	二股 婚姻의 原因 The Origin of Marriage	一段 上帝피서 婚姻法을 세우신 證據	
		二段 國法도 上帝피서	
	三股 婚姻의 意向 The Design of Marriage	一段 婚姻은야 家屬을일우는거슨 社會를 淨潔케 恤	
四股 婚姻은 後에 恤 義務 Duties Imposed by Marriage	一段 夫婦가 宜當히 恤 義務		
	二段 夫婦의 特別히 義務		
二大旨 父母와 子女의 相關된 義務	一股 父母가 子女의게 恤 義務 Duties of Parents toward Children	一段 父母가 子女를 愛할 것	
		二段 父母가 子女를 教育함	
		三股 父母가 子女를 治理하는 權勢	
	二股 子女가 父母의게 恤 義務 Duties of Children toward Parents	一段 子女가 父母를 愛할 것	
二段 子女가 父母의게 順良할 것			
三股 子女들이 順從하여야할 것			
三大旨 主人과 役軍의게	一股 主人이 代理人의게 恤 義務 Duties of Masters toward		

相關된 義務	Servants		
	一股(二股를 잘못 인쇄한 것으로 보임) 役軍과 代理人이 主人의게 할 義務 Duties of Servants toward Masters		

〈표 3〉 三章 國家의 相關된 義務

대지 대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國家에서 할 義務	一股 國家가 人民의게 할 職責 Duties of the State toward its Citizens	一段 國家에서 治理하는 權勢	
		二段 國家의 改善하는 일	
	二股 國家가 自國內와 外國의게 할 職責 Duties of the State toward Itself and other States	一段 國家가 自己의게 할 義務	
		二段 外國의게 宜當히 할 義務	
	三股 國家가 上帝의게 할 義務 Duties of the State toward God	一段 上帝를 宜當히 알 것	
		二段 上帝의 法을 順從할 것	
二大旨 人民이 國家의게 할 義務	一股 人民들이 國家의 保護받음을 因하여 宜當히 할 義務 The Citizen as Protected in Freedom		
	二股 人民들이 國家에서 할 職責을 因하여 할 義務 The Citizen and the National Mission		

(3) 三題目 上帝의 勸 分本

〈표 1〉 一章 知能을 上帝의 穩全히 맞칠 것

대지 대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義務의 宜當호 證據	一股 義務를 自知할 것			
	二股 義務는  아닌디서 始作호			
	三股 此義務가 一般人의게 宜當호			
二大旨 義務의 限定	一股 萬物을 畧히 工夫할 것			
	二股 人의 生理를 畧히 工夫할 것			
	四股(三股가 편집상 생략되었거나 三股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생각됨) 工夫할 목적	一段 上帝의 屬性		
		二段 상제의 攝理호심		
	三段 上帝의 恩惠			

〈표 2〉 二章 感覺을 上帝의 穩全히 맞칠 것

대지 대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義務의 宜當호 證據	一股 義務를 自然히 알 것		
	二股 처음으로 아는것부터 始作호		
	三股 義務는 全體로  할 것		
二大旨 義務의 限定	一股  하나님은 至極히 穩全호심		
	二股  하나님은 至極히 義로오심		
	三股  하나님은 至極히 恩惠스러움		

〈표 3〉 三章 意志를 上帝의 穩全히 맞칠 것

대지 대旨	고股	단段	층層
一大旨 上帝를 順從할 것	一股 順從하는 理致 The Nature of the Obedience		
	二股 順從하는 憑據 The Grounds of the Obedience	一段 上帝의 人을 創造하시고 道德을 主管하심	
		二段 上帝의 人의 本이나 穩全한 關心이 되심	
		三段 上帝의 人의 至極한 目的이 되심	
二大旨 上帝를 敬慕할 것	一股 祈禱의 義務 The Duty of Prayer	一段 祈禱하는 義意	
		二段 祈禱의 定則	
		三段 祈禱할 憑據	
		四段 祈禱할 條件	
	二股 主日을  지키는 義務 The Duty of Sabbath Observance	一段 主日의 源	
		二段 主日을  지키는 意向	
		三段 主日을 宜當히  지키는 證據	
三大旨 上帝의 維新케 하는 方策을 맞을  것	一股 個人이 維新케 하는 方策을  맞고  하나님을 恭敬함 Personal Acceptance and Devotion		
	二股 一般人이 維新케 하는 方策을  맞고 하나님을 恭敬함 Acceptance and Devotion for Mankind		

3. 結末